

■ 주요 뉴스: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제어 위한 금리인상 강조, 고금리 유지 필요성도 제시

- 뉴욕 연은 설문조사, 가계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하락
- ECB, 향후 큰 폭의 임금상승을 예상. 인플레이션 여파로 실질임금은 감소할 가능성
- 중국 정부, 주요 전략산업의 성장을 위해 식음료 등 일부 산업 내 신규상장 제한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통화긴축 완화 기대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이 영향
주가 하락[-0.1%], 달러화 약세[-0.7%],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 인사들의 고금리 유지 예상 등으로 하락 전환
유로 Stoxx600지수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7개월 만에 최저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8%,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 등이 반영
독일은 높은 수준의 역내 근원소비자 물가 등으로 2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38.2원, -5.3원) 0.3% 하락, 한국 CDS 하락

		1/9일	1/6일	전일대비			1/9일	1/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92.1	3,895.1	-0.08%	국채 금리 10y	미국	3.53%	3.56%	-3bp
	유럽	448.35	444.42	0.88%		독일	2.23%	2.21%	2bp
	중국	3,176.1	3,157.6	0.58%		영국	3.53%	3.47%	5bp
	일본	휴장	25,974	-	CDS 5y	한국	46bp	49bp	-3bp
	한국	2,350.2	2,290.0	2.63%		중국	58bp	61bp	-3bp
환율	달러지수	103.19	103.88	-0.67%	위험 지표	EMBI+	-	390	-
	유로화	1.0730	1.0644	0.81%		VIX	21.97	21.13	3.98%
	엔화	131.88	132.08	0.15%		WTI유	74.63	73.77	1.17%
	위안화	6.7719	6.8280	0.83%	원자재	구리	401.0	391.1	2.52%
	원화	1,243.50	1,268.6	2.02%		금	1,871.8	1,865.7	0.3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주요 인사, 인플레이션 제어 위한 금리인상 강조, 고금리 유지 필요성도 제시
 -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과도한 수요를 축소시키기 위해 금리가 5.00~5.25%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 또한 5.00% 이상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 한편 이번 주 발표 예정인 '22년 12월 소비자물가의 상승세 둔화가 확인되면 2월 FOMC에서 0.25%p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
 -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연방기금금리 목표가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다만 최종금리 수준 및 그 이후의 움직임은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예측이 어렵다고 부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첨언
 - 아울러 2월 FOMC 결과에서 금리인상의 폭은 0.25%p 혹은 0.50%p가 될 수 있다고 예상. 고물가 고착화 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인플레이션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해 되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뉴욕 연은 설문조사, 가계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하락
 - '22년 12월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1년 후 물가상승률을 5.0%로 예상했는데, 이는 전월(5.2%) 대비 낮아진 수준이며, '21년 7월 이후 최저. 3년 및 5년 후 예상 물가상승률은 보험 및 소폭 상승(각각 3.0%→3.0%, 2.3%→2.4%). 한편 향후 소득증가를 전망하는 경우는 늘었으나, 소비확대를 계획하는 경우는 감소
-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제자문회의의장, 연준은 필요 이상의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
 - 크리스티나 로머 전 의장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아직 초기이며, 향후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연준이 실수하지 않고 금리인상 중단 및 금리인하 시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

■ ECB, 향후 큰 폭의 임금상승을 예상. 인플레이션 여파로 실질임금은 감소할 가능성

- 최근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 지속.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져 임금상승세가 약해질 수 있다고 평가. 또한 실질임금의 감소는 상당 기간 이어질 소지

■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고물가 지속 위험이 증가할 전망

- 필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이 다른 주요국 대비 고물가 장기화 위험이 크며, 이에 따라 영란은행도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발언. 높은 수준의 가스가격과 만성적인 노동시장 내 수급불균형 등이 문제라고 지적

■ 중국 정부, 주요 전략산업의 성장을 위해 식음료 등 일부 산업 내 신규상장 제한

-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식음료, 주류 부문 등의 기업에 신규상장을 금지하고 의류, 가전 등의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상장을 엄격하게 검토. 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
- 한편 인민은행의 귀수칭 부총재는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금년 통화정책은 개인소비를 통한 수요확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천연

■ 골드만삭스, 중국 위안화 강세 및 주가 상승 지속 예상. 주요 정책전환을 반영

- 향후 12개월 MSCI 중국 지수는 80까지 올라 현 수준(70)에서 14% 상승할 것으로 전망. 위안화 가치 역시 달러당 6.5위안화를 기록하여 현 수준(6.8위안)에서 5% 가량 오를 것으로 기대.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 등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기대

■ 일본 '22년 파산기업, 3년 만에 증가세 전환 예상. 비용증가 및 수요감소 등이 원인

- '22년 11월까지의 파산기업 수는 5822건으로 전년동기비 5% 증가. 작년 전체로는 6400건을 기록해 '21년(6030건)을 넘어서며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 엔화 약세에 따른 비용 증가와 글로벌 경기부진에 의한 수요감소 등이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0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 ECB 슈나벨 이사,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강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주요국 경제 신호에 대한 평가, 낙관적인 편견을 경계할 필요 - Financial Times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misaligned economic signals)

- IMF는 조만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 세계 3대 지역인 미국, 유럽, 중국이 서로 다른 이유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
- 3대 지역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분석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의 압력이 그저 ‘단기적이고 얇은 수준’으로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작년 주요국 물가가 일시적이라고 무시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
- 각 지역의 침체 요인들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확대시키고, 경기침체의 폭은 더 커질 우려. 현재 주식시장은 세계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각국이 보여주는 경제 신호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

■ 각국 중앙은행의 신뢰도,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이 관건 - Financial Times

(Central banks can't win when it comes to credibility on inflation)

- 전통적으로 중앙은행들은 고물가 제어에 주력하고, 물가 목표제 설정으로 이를 조율하는데 노력.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디스인플레이션에 빠진 경기상황을 견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뢰 확보를 위해 금리인상을 지연
- 향후 고령화, 탈세계화, 중국의 저성장 등으로 다시 저물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상당. 이에 중앙은행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가 필요

■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희토류 공급,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 - 블룸버그

(China's Got the Dysprosium. That's a Problem)

- 1980년대 중국 덩샤오핑은 “중동에는 석유가 있지만 중국에는 희토류 금속이 있다”고 언급. 다른 국가들은 이제야 21세기 지정학에 대한 그의 통찰력을 인식
- 중국의 꾸준한 희토류 개발로 인해 '10년경 전세계 공급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부상. 서방 국가들이 공급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점에 가까운 영향력을 보유
- 현재 러시아가 서방에 대해 에너지 전쟁을 일으키듯이 중국도 희토류 관련 전쟁을 일으킬 소지. 20세기 원유 관련 갈등이 고조된 것처럼 희토류 전쟁을 방치한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사태가 될 전망

■ 금년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이전보다 감소할 가능성 - 블룸버그

(US Corporations Are Still Lining Up to Buy Back Their Own Shares)

- '22년 미국 기업은 자사주 매입에 약 1조 달러를 지출하여 전년 대비 3% 증가. 이는 직원들에 대한 주식 보상으로 인한 대주주 지분을 하락 효과 방지, 작년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 등으로 추정. 일각에서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금년에 기업들이 주가 방어를 위해 1조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 가능성을 제기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현실화 가능성은 불확실. 일부에서는 금년 자사주 매입의 10% 감소를 예상. 그리고 경기침체 발생 시 40% 감소할 것으로 예측. 또한 '22년 4/4분기 이익의 전년비 3%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주 시작되는 본격적인 실적발표 기간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어 자사주 매입은 전년보다 증가하기가 어려울 전망

■ 금년 유럽 기업의 이익 전망, 과도하게 낙관적일 가능성 - Financial Times

(Europe 2023: outlook for profits is overly optimis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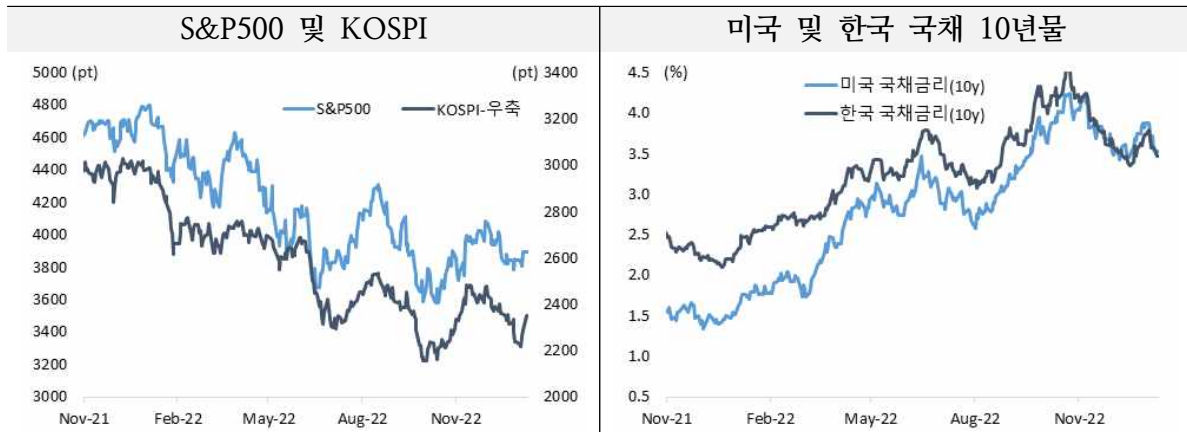
■ 중국 채권시장, 경기회복 기대에도 단기간 내 해외자본 유입 증가는 어려울 소지 - WSJ

(Foreign Investors Are Leery of China Bets, Despite Rebound Expec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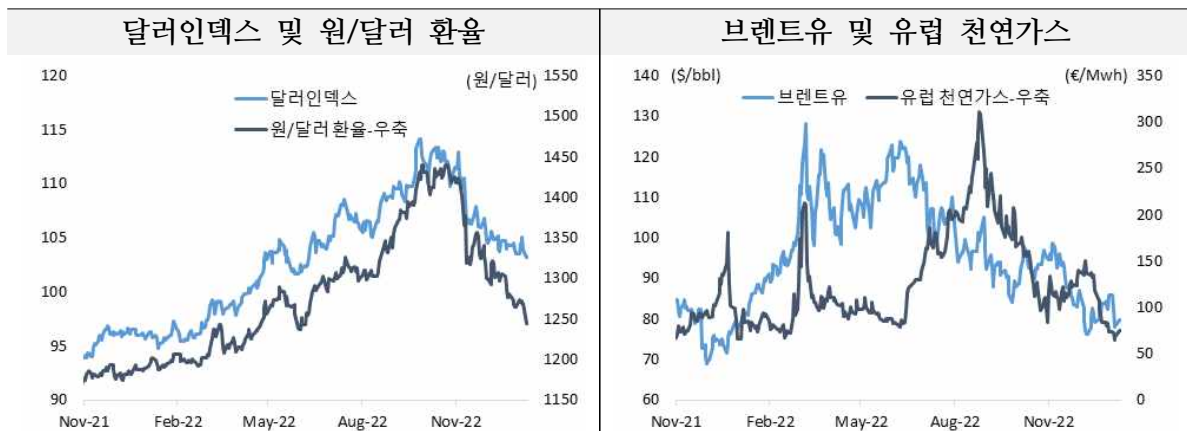
■ 미국 주택시장, 임대주택 중심으로 경착륙 신호가 발신 - 블룸버그

(Rental Housing Is Suddenly Headed Toward a Hard Landing)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